

##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주력

###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 제도화

#### 여성 경력단절 예방...가족친화제도 활성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노동이 존중받고, 여성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핵심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8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에 대해 보고하고 토의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는 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 의료분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증가분 약 10만개를 포함할 경우 20만명까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했다.

8월 9일 발표된 건강보험 강화대책에는 국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보건 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인력수급 종합대책,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8월 23일 열린 노사정 공동선언식에서는 10대 논의과제로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수급 지원 방안,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 보건 의료인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방안, 보건 의료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 근로

안정화 방안, 보건 의료인력 관리 체계 구축, 의료기관의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지역사회 보건인력 확충 등 지역보건 인프라 강화 방안, 인력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 방안, 일자리 창출 미래형 신사업으로 보건산업 육성 등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호스피스 대상 확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도입 등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됐던 방문간호관리를 확대해 보건소를 통해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취약지역 거점 종합병원을 구축하고,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어디서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보건 산업도 적극 육성해 전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과 장시간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 노력 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감독 행정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에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할 계획이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채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결혼 대체 등)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반기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인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TF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고자 일간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 방안을 중점과제로 보고했다. 2022년까지 30대 여성 고용률을 63%로 높이고, 젠더폭력 없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자녀돌봄 부담 등에 따른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터의 가족친화제도를 활성화하고, 빈틈없는 돌봄 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제도 실천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고용부 근로감독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젠더폭력방지법(가칭)과 스토킹처벌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다.

공공기관의 성폭력·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몰래 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처벌·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인상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9월 1일부터 인상됐다.

현행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게 된 배경은 최근 실태조사에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육아휴직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20만원의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유지됐다.

이번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급하게 됐다.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는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가 지급된다.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은 엄마, 아빠 각각 1년씩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보연계를 통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강화해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시키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문화를 개선하는 데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

##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결정

보건복지부는 제14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8월 29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인상은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자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해 결정됐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비가 20~60%에서 10%로, 15세 이하 아동 일원 의료비 부담이 10~20%에서 5%로 완화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본인부담이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8년에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비급여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초음파, MRI(적추 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난청, 대사이상) 및 고령의 의료비가 소모되는 언어치료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병적 고도비만에 대한 수술치료를 위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40~50만원 이하된다.

주혜진 기자 hjjo@

## 간협, 충북지역 수재민 돕기 성금 전달

### 전국 간호사·간호대학생 실시일반 정성 모아

대한간호협회는 집중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지역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수해의연금 1637만8000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수해의연금 전달식은 8월 30일 충북도청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한명자 충북간호사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기탁금은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임직원,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했다.

간호협회는 이상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고통과 실의에 빠진 수재민을 돕기 위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한 바 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왼쪽부터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명자 충북간호사회장.

지정기탁했으며, 수해를 입은 충북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수해를 입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마음으로 실시일반 정성을 모았다"면서 "수재민들이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수해 복구에 큰 힘이 됐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수재민 돕기 성금 모금에 동참한 단체와 기관 및 개인은 다음과 같다.

◇**단체**= △대한간호협회 △서울시간호사회 △부산시간호사회 △대구시간호사회 △인천시간호사회 △광주시간호사회 △대전시간호사회 △울산시간호사회 △경기도간호사회 △강원도간호사회 △충남간호사회 △전북간호사회 △경북간호사회 △경남간호사회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군진간호사회 △보건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마취간호사회 △보건진료소장회 △보건교사회 △노인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기관**= △구포성심병원 간호부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부 △도림경산 노인병원 간호팀 △안동의료원 간호사회 △충북대병원 간호부 △한림병원 간호부(가나다순)

◇**개인**= △강경생 △강은영 △고유진 △곽성실 △곽윤희 △권성경 △김금희 △김남초 △김도완 △김미경 △김순용 △김영희 △김옥수 △김인자 △김정란 △김지선 △김지현 △김진순 △김진화 △김정용 △김혜정 △김현미 △김현정 △김효영 △남정자 △박성희 △박장일 △박지선 △박진아 △박혜선 △방정희 △배미화 △배연숙 △배정은 △백민지 △백선숙 △백찬기 △변영옥 △어현주 △서선애 △이정은 △성민희 △소애영 △손미나 △송영주 △송인숙 △송태윤 △송현주 △신화자 △애정의 △양려하 △양금옥 △오경현 △유두순 △윤은영 △이경숙 △이기영 △이대호 △이미은 △이성숙 △이숙재 △이예스터 △이영옥 △이영현 △이인숙 △이향숙 △이희건 △임명옥 △임신자 △장진숙 △정민희 △정영미 △정혜선 △정혜영 △최나혜 △최미옥 △최석진 △최영하 △최희아 △최인영 △하시영 △한 별 △한정희 △한종택 △함다슬 △허은별(가나다순)

**신발도 과학이다. 이제 건강을 신자!**

**발 피로를 풀어주는 세계적인 특허제품인 NABE 간호사 건강신발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5컬레이상 주문시 : 10%DC  
10컬레이상 주문시 : 15%DC  
20컬레이상 주문시 : 20%DC

2011년 신제품  
기능성 벨크로타입 출시

•NB-N02(샌들) 인조가죽 ₩30,000 Size : 225~250

•NB-N01(샌들) 인조가죽 ₩30,000 Size : 225~250

•NB-C03(캐주얼) White ₩40,000 천연 소가죽 Size : 225~250

•NB-C01(캐주얼) White ₩34,000 고급 인조 가죽 Size : 225~250

신제품(고급)

•NB-C02(고급형 캐주얼) Black ₩60,000 천연 소가죽, 돈피 Size : 225~250

•NB-SW01(여성용 샌들) Black / Beige 내피 : 소가죽 외피 : 고급인조가죽 Size : 225~250 ₩40,000

•NB-C07(캐주얼) 진밭색 ₩60,000 천연 소가죽 Size : 225~250

런닝화 HSO11 네이비 소재 : 소가죽, 에어메쉬 Size : 225~280mm 150,000 → 95,000

런닝화 HSO10 흰색/분홍색 소재 : 소가죽, 에어메쉬 Size : 225~255mm 150,000 → 95,000

남성용 구두 NB-MD02 Brown 소재 : 소가죽 Size : 245~280mm 140,000 → 60,000

스니커즈 Black/White 소 재 : 최고급 소가죽 Size : 225~280mm 180,000 원